

[보도자료]

간접고용 현장증언 및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목) 11시
- 장소 : 국회 앞

■ 순서

- 발언 1.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언 2.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 발언 3. 희망연대 노동조합
(씨앤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 발언 4. 금소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 발언 5.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 분회, 서울시중앙버스차로분회)
- 기자회견문 낭독

비정규직 투쟁 승리의 큰걸음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기자회견문]

진짜 사장이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외주, 하청사장을 매개로 중간착취하는 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못살겠다” 며 전국적으로 펼쳐 일어나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계약해지 직전 2년간 일하면서 4개월, 6개월, 2개월마다 모두 일곱 번의 근로계약서를 썼다. 또한 그녀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한 성추행도 견뎌야 했다. 24살 청춘의 나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겼고 목숨도 빼앗겼다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가 분신했다.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 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려 했다. 모욕을 참으며 최저임금도 못받는 그리고 용역업체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절한 절규가 들린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행사하려면 장기 투쟁과 생계를 박탈당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다.

공격적, 선별적 직장폐쇄와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외주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노조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씨앤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교섭에서 보듯 모든 주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 경총이 대리교섭에 나서고 있어 대기업들의 담합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9월 18일, 19일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25일 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등 잇따른 판결을 통해 모두의 완성차 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졌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판결 후 한 달이 넘어가는 동안에도 대법의 최종판결이 아니라는 핑계로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결을 외면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며 막무가내다.

2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수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럴 듯한 정책 방향을 표명했으나, 그 진의와 진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고 역주행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구조화, 고착화돼 전국에 만연한 민간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

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불법.탈법.편법 형태를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위선적인 정책기조이다.

하청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은 바로 끝이다. 우리사회 노동자 5명중 1명은 파견,하도급, 용역등 간접고용 신분이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87%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거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간접고용을 늘려왔다. 고용유현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반인간 반노동적인 간접고용의 확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암세포처럼 도사리고 퍼져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앞서 말한 고통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었다. 우리사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고용형태,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의 핵심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탄압의 현실을 밝히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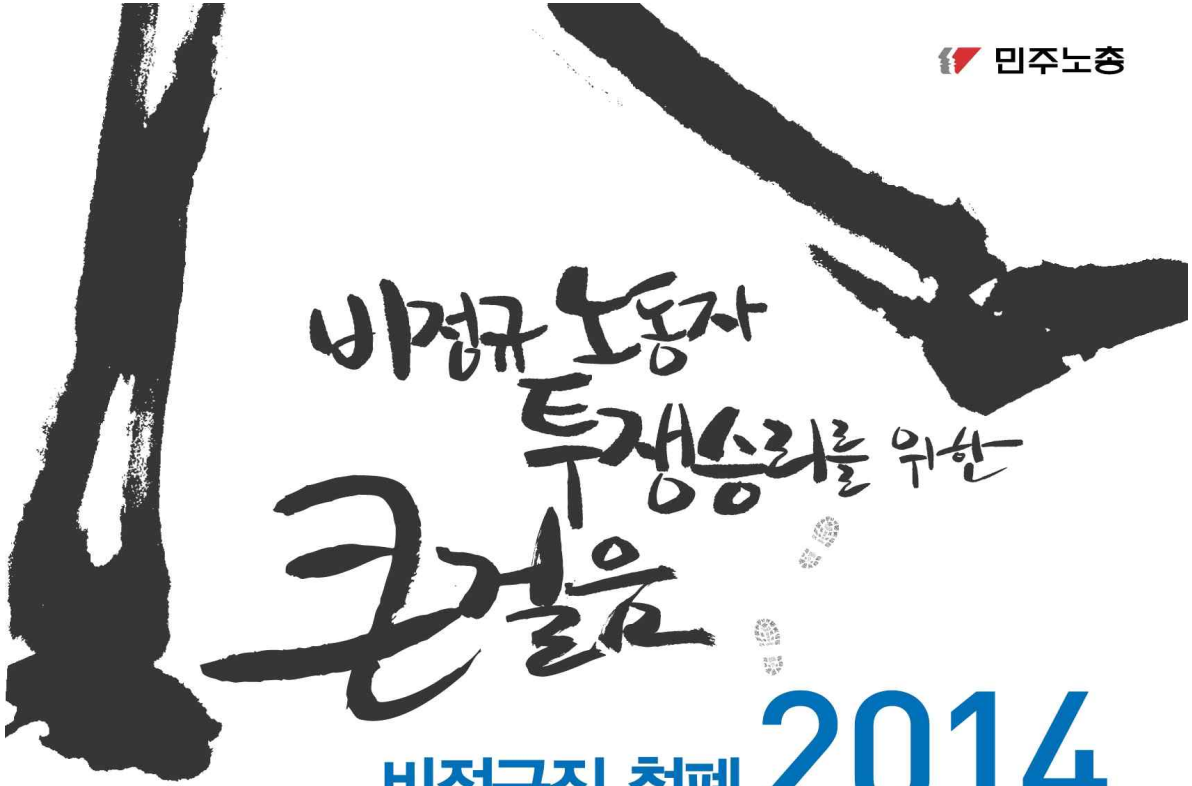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이 하나로 뭉쳐 탄압하는 양상은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철면피를 깔고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다.

간접고용 사업장의 투쟁현황과 현장증언을 통해 우리사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 설움으로 대별되는 비정규노동체계의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농성과 고용불안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지워버리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이 땅 민중들의 희망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23일

간접고용 현장증언 및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비정규 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큰 걸음

비정규직 철폐 2014 전국노동자대회

일시_ 2014년 10월 25일(토) 17시
장소_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

핵심요구

- ① 비정규직 철폐,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②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정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 ③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하는 시간제 확대 중단, 박근혜 퇴진

요구와 목표

- ① 사내하도급, 간접고용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정취
- ② 공공 및 민간부문 시간제비정규직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 ③ 민간위탁 중단과 직영화 전환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확대
- ④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금지
- ⑤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
- ⑥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노조파괴 중단
- ⑦ 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퇴직금 귀국후 수령제 폐지
- ⑧ 호봉제 전면실시
- ⑨ 기반적인 정부 비정규직중립대책 폐기

* 비정규 철폐 주간행사 안내 (10월 20~24일)

일시	주제
10.20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선포 기자회견 11시 광화문광장 기반적 비정규대책 비판 비정규직없는 충북 만들기 투쟁선포기자회견 11시 충북도청
10.21	공공부문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캠페인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16개 전국시·도청)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발함과 시장화 된 사회서비스 비판 및 대안 토론회 16시 공공운수노조
10.22	01012(한미)단, '노년... 그리고 간병' 요양 노동자의 만남 15시 탐광공원 비정규 사업장 투쟁문화제 19:30 여의도LGS아울(가)
10.23	시간제 일자리 실태 증언 및 기자회견 10시 간접고용노동자 현장보고(증언) 대회 및 간접고용사업장 대표자 기자회견 11시 국회정문 충북비정규직노동자증언대회 17시 청주대 분관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지역 집중 결의대회 17:30 서울교육청 앞

정부의 비정규 대책 비판 및 민주노총 대안 및 대응 종합 토론회 10월 29일 10~18시 국회한정기법관



사전대회

단위	사전대회	시간 및 장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비정규직 결의대회	13시, 서울역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별방송동신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	13시, 서울도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	15시, 파이낸스빌딩
금속노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15시, 서울도심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박근혜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	15:30, 영풍문고

사업장 명	서울일반노조 고려정업분회		
상급단체	서울본부	조합원수	11명
< 현황 >			
2013년 11월 2일 노조 창립 어용 노조 존재로 단체교섭은 하지 못하고 투쟁 중심으로 노조활동 해옴.			
<노동실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 및 살인적 노동형태			
16~20시간 하루에 과도한 업무 일만만큼 초과 수당을 받고 있지못함 관리자의 악독한 노무 관리			
<원청의 개입 사용자성>			
실질적으로 강동구청장이 민간위탁을 계약을 맺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노동탄압사례>			
민주노총 조합원만 표적 해고를 위한 징계위 남발 민형사 고소고발 남발			
<해고 현황>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 중심으로 연말에 대량 해고 예상			
<요구>			
단체교섭 응하라!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임금채불 즉시 지급하라!			
[담당자 및 연락처] 대협국장 김선기 (010-9632-6639) 분회장 김범태(010-7115-0926)			

사업장 명	서울일반노조 신현대APT분회		
상급단체	서울본부	조합원수	70명
< 현황 >			
2014년 10월 7일 이*수 조합원 분신 2014년 10월 13일 규탄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 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			
<노동실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 및 살인적 노동형태			
최저임금 90% 적용 24시간 근무형태 기본 경비업무외 과도한 업무			
<원청의 개입 사용자성>			
정년 등 노동조건 핵심적인 결정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이가 가지고 있음.			
<노동탄압사례> 구체적으로			
경비업무외 과다한 업무(택배 보관 및 전달, 주차, 조경, 재활용 등)			
<해고 현황>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연말에 대량 해고 예상			
<요구>			
정년 60세에서 65세 보장하라! 분신 사고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이가 사고하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틀을 마련하라!			
[담당자 및 연락처] 대협국장 김선기 (010-9632-6639) 분회장 김길환 (010-9429-3296)			

사업장 명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상급단체	민주노총 총연맹	조합원수	2000명
< 현황 >			
<p>2008년 11월 공공운수노조 가입(당시 약 850여명)</p> <p>2013 2월 공항공사 하청업체 상대 산별교섭 진행</p> <p>2013 11월 5개 사업장 약 500여명 부분, 전면 파업 진행</p> <p>2014년 7월 업체변경 과정에서 지부장 두번째 해고, 육아/출산휴가자 8명 해고</p>			
<노동실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 및 살인적 노동형태			
<p>인천공항을 운영하는 7천여명 중 약 6천여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약 87%. 국내 최대 수준) 원청인 공항공사가 책정된 인건비 중 약 4~7백만원(연봉기준) 중간 착취</p> <p>비정규직 중 약 60% 노동자들이 3조2교대(야간 이틀 연속 근무, 건강상/안전상 위험), 정규직은 4조3교대</p> <p>연 천만원대를 넘는 정규직들의 성과급과 달리 작년 파업 여파로 신설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 성과급은 최소 '0원' 에서 시작하도록 함.</p>			
<원청의 개입 사용자성>			
<p>사실상 6천명 대부분이 공항공사가 정한 파업을 일의 종료기간 없이 계속 진행함. (공항공사는 도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파견)</p> <p>파업 대비 노동조합 현황 파악, 신규노조 대응 등 사실상 사측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관리 함.</p>			
<노동탄압사례> 구체적으로			
<p>2013년 파업은 쟁의권을 획득한 합법 파업임에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으로 지도부 고발 파업에 대한 보복성 해고(지부장)</p> <p>1인시위 했다고 업무방해로 고발(공항공사)</p> <p>작년 파업에 참여했던 환경미화 노동자들 화장실 갔다고, 혼자 업체 욕했다고 징계(정직-하청 업체)</p> <p>하청업체가 바뀌는 입찰시기 업무 쪼개기, 고용불안등을 이용해서 노조간부들에 대한 탄압</p>			
<해고 현황>			
<p>2009년 7월 노조 간부 7명 해고, 업체 변경과정 중(2명 끝까지 미 복직)</p> <p>2014년 7월 지부장, 육아/출산휴가자 8명 해고, 업체 변경과정 중</p>			

<요구>

비용절감 효과, 업무 효율성 더 높은 일괄 직접고용 시작하라

하청업체 방패 삼아 일삼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

제2여객터미널 건설노동자들에게 실시하는 중간착취 실시간 모니터링 6천명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당장 실시하라

[담당자 및 연락처] 정책국장 신철 (010-2502-3584)

지부장 조성덕 (010-8818-7978)

사업장 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상급단체	금속노조	조합원수	30명
< 현황 >			
<p>-2003년 8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설립 (조합원들이 있던 업체가 2003년 9월부터~2003년 12월까지 대부분이 폐업, 사업부분 폐쇄)</p> <p>-2014년 들어 11년만에 11개업체를 대상으로 10대 요구안을 내걸고 교섭을 진행중이나 진척없음</p> <p>-위험의 외주화로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재문제가 심각하나 다단계 하도급인 물량팀을 계속 확산시켜 산재의 위험성을 증가시킴.</p>			
<노동실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 및 살인적 노동형태			
<p>-사내하청비율이 6~70%에 이르고 더욱 분화되서 다단계 하도급인 물량팀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물량팀의 확산은 만성적 고용불안, 산재위험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p> <p>[현중사내하청지회 2014년 10대 요구]</p> <p>▲토요일 유급화 ▲성과급 동일적용 ▲학자금 상향조정▲출입증 3일 이내 처리 ▲노조활동 보장 ▲임금인상 ▲안전한 일자리 확보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보장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동일적용</p>			
<원청의 개입 사용자성>			
<p>2003년 9월부터~2003년 12월까지 자행된 조합원이 있는 업체의 보복적 계약해지, 폐업이 2010년 3월 대법원에 의해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공동 당사자라는 판결을 이끌어냄</p>			
<노동탄압사례> 구체적으로			
<p>-조합원이 있고, 노조활동 가능성있는 업체의 폐업움직임(폐업위협)</p> <p>-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 계약해지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유포(조선업종 공유), 출입증 봉쇄</p>			
<해고 현황>			
<p>노조(지회)설립이후부터 다수 발생, 열사가 생기기도 함. 현재는 생계로 유동적이고 하청민 지회장이 남아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p>			
<요구>			
<p>-원청회사의 교섭참가</p> <p>-11개 하청업체 하청업체 집단교섭 강제</p> <p>-최소한의 요구인 10대요구 수용</p>			
[담당자 및 연락처] 지회장 하창민(010-6570-3694)			

사업장 명	현대제철비정규지회		
상급단체	금속노조	조합원수	800명
< 현황 >			
<p>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에 설립하여 1년간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조인정 3대목표로 투쟁하여기본협약을 쟁취하였고 이후 업체들과 입단협 집단교섭을 성사시키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업체의 형식적인 교섭태도로 인해 조정신청을 진행하고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쟁취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p>			
<노동실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 및 살인적 노동형태			
- 교대제 근무형태 차별, 임금 및 단협 차별, 작업도구지급 차별			
<원청의 개입 사용자성>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10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1.7.19.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 인소송을 접수했으며 소장 접수했으며 연말에 1심예정			
<노동탄압사례>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다수 있는 업체 폐업, 교섭 해태			
<해고 현황>			
노조(지회)설립이후부터 8명의 해고자 발생			
<요구>			
-업체의 성실교섭 요구, 해고자 복직			
[담당자 및 연락처] 지회장 조민구(010-5416-2541)			

사업장 명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상급단체	금속노조	조합원수	1180 명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7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 2013년 9월 단체협약 요구안 발송 - 2013년 10월 31일, 최종범 열사 표적감사 항의하며 자결. - 2014년 1월 이후 파상파업 - 2014년 5월 17일, 영호석 열사 임단협 쟁취를 기원하며 자결. - 2014년 6월 28일, 잠정합의 - 보충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날인이 지연되고 있음. 			
<노동실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 및 살인적 노동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 초장시간 노동과 건당수수료 임금체계에 시달림. -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 - 감정노동자 평균보다 자살을 생각해본 비율이 높을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 고객을 응대하는 동시에 관리자로부터 감정노동을 강요받아 그 스트레스가 극심함. - 최소한의 노동안전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3월 발표, 21만건 산안법 위반 적발) 			
<원청의 개입사용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물량의 접수, 배분부터 유상수수료 징구까지 원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청 관리자들과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물량배정, 업무독촉, 교육 등이 진행됨. 이미 1004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3차 소송이 준비중. 			
<노동탄압사례> 구체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3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회를 중심으로 한 폐업(해운대, 아산, 이천) - 현재도 진주센터가 폐업되어 폐업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감사와 물량빼가기 등은 계속되고 있음. - 신규센터를 중심으로 조합원 탈퇴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됨. 			
<해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영일(지회장), 신장섭(전 사무장), 안양근(대의원) 등이 해고됨. 그에 대한 법정투쟁이 진행 중.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청과의 공개 교섭 혹은 협력사협의회와의 집단교섭 강제 - 임금체계 개편 			
[담당자 및 연락처] 지회장 위영일(010-6741-8818)			

사업장 명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상급단체	금속노조	조합원수	800명
< 현황 >			
- 2004년 지회 설립, 이후 10년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전개, 150여명의 해고자와 200억의 손배가압류에 걸려있음. 818사내하도급 합의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투쟁 전개중			
<노동실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 및 살인적 노동형태			
- 급여가 정규직의 약 60%, 사내복지 열악, 고용불안			
<원청의 개입 사용자성>			
2014년 9월 18일, 19일 근로자지위확인집단소송 1심선고에서 전원불법파견 인정을 받음.			
<노동탄압사례> 구체적으로			
- 판결이후 조합원 가입사업을 진행하려고하자 지회 임원상집의 현장 출입을 봉쇄			
<해고 현황>			
- 2004년이후 150여명 해고			
<요구>			
- 생산공정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담당자 및 연락처] 지회장 김성욱(010-9232-8301)			